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 인근에서 농약 불법 방류가 적발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마을 하천에 농약 ‘칼칼’ ...비양심 적발

자치경찰, 무단 투기 농부 입건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농업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 2일 감귤나무에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ℓ를 물과 섞어 하천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도 자치경찰단은 A씨가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버린 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식 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농약 무단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은 제주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농약 희석액을 버린 하천 하류 1.5km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잡고 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upress.co.kr

(11.3*18.7)cm

제주매일

지방하천에 쓰다남은 농약 희석액 ‘칼칼’

자치경찰, 무단 투기 A씨 적발

감귤나무 방제작업에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을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농업인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일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A씨는 지난 2일 방제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다이센’ 농약 희석액 200여ℓ를 지하수와 섞어 인근 주택가 도로 등에 무단 투기했다.

이렇게 방류된 농약 희석액은 우수로를 따라 지역 내 지방하천인 창고천으로 흘러 들어가 물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고천 하류 1.5km 지점은 희귀식물

이 자생하는 등 학술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 잡고 있어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농약 무단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은 제주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청정 제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농약 희석액이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이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다른 농업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투기한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영 기자



안덕면 창고천에 불법으로 방류된 농약으로 하천이 뿌옇게 변해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6.7×17.8)cm

하천에 희석농약 200ℓ 버린 농민 적발

자치경찰 “무단투기 엄단”

감귤나무에 살포하다 남은 농약 희석액 200ℓ가량을 하천에 무단투기한 농업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장마 이후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ℓ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지방하천에 투기한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공동운영 관정이 있는 고지대로 올라가 지하수를 섞은 뒤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이센’ 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약으로 하천물이 혼탁해진 상황이 목격됐다.

창고천 하류 1.5km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잡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17.7*7.9)cm

농약 희석액 제주 하천에 유입 자치경찰단, 70대 농업인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유입시킨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70대 농업인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농약 희석액 200여 ℓ를 유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감귤 농사를 하는 A씨는 감귤나무 방제에 사용하고 남은 다이센 농약을 하천에 투기하기 위해 마을 공동 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농약에 지하수를 섞어 흘려보내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약이 유입돼 하천물이 혼탁해지고,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 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13.8*7.7)cm